판문점 장성급회담의 실제(1998. 6~1999. 9)

琴 琦 淵
(공군준장(예), 장성급회담 초대 한국대표)

1. 시작하는 글
2. 판문점 장성급회담 개요
3. 판문점 장성급회담 내용
4. 마치는 글

1. 시작하는 글

판문점 장성급회담은 기존의 군사정전위원회(군정위) 본회의와는 여러 면에서 다르고 한국대표의 입지도 강화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대립과 선전으로 일관했던 군정위 본회의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회담을 비공개로한 결과 그 진행과정이 일반에게 알려지지 못한 관계로 장성급회담도 군정위 본회의와 다를 바 없이 미국대표가 회담을 주도한다거나 한국대표의 역할이 미미하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일부에서 갖게 된 것 같다.

필자는 장성급회담의 초대 한국대표로서 1차 회담부터 11차 회담까지 참가하여 누구보다도 회담의 실상을 잘 알고 있다. 한국대표에게는 발언권이

없다보니 구경(?)만 하고 있어야 했던 군정위 본회의와 달리 장성급회담은 대표 모두에게 동등한 발언권이 주어졌고, 필자도 이 발언권을 활용하여 우리 국방부와 정부의 입장을 시의적절하게 대변하였으며, 온갖 궤변과 희한한 억지논리를 앞세운 북한의 불순한 기도를 번번이 좌절시킬 수 있었다.

본고에서는 필자가 직접 참가했던 회담을 위주로 실제 회담의 진행을 되돌아보고자 한다. 형식상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그 성과나 의의에 대한 논의는 때 이르다 할 수도 있으나 처음 시작한 지 5년이 되는 지금, 한번쯤 지난 과거를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회담의 배경, 준비과정, 평가, 회의록 등 회담 전반에 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필자가 별도로 준비하고 있는 「판문점 장성급회담 - 그 역사의 기록」을 참고하기 바란다.

2. 판문점 장성급회담 개요

「판문점 장성급회담」이란 1998년 6월 23일 첫 회담을 가진 [정전문제에 관한 국제연합군과 조선인민군 간의 장군급 대화(UNC-KPA General Officer Level Dialogue on Armistice Issues)]의 약칭으로서 통상 장성급회담 또는 General Officer Talks를 줄인 GOT라고 부르기도 한다.

(1) 장성급회담이 있기까지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에 의하여 설치된 군정위가 정전체제의 관리기구로서 협의를 계속하여 왔으나, 1991년 3월 유엔사측이 군정위 수석대표에 한국군 장성을 임명하자 북측이 이에 반발하여 급기야는 군정위 본회의 참석을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군정위에서 북측대표단을 철수시키는 등 군정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책동을 계속하였다. 따라서 이 기간 중에는

대령급 비서장회의만 열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 1994년 12월 미군 헬기가 항법착오로 군사분계선을 월선하여 격추되어 조종사 송환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미국측이 적절한 형태의 군사접촉 유지를 합의하였다. 이를 계기로 1995년 3월 북측이 미·북 장성급회담을 제의하여 왔고, 한·미 간의 긴밀한 협의와 대북협상을 거쳐 1998년 6월 23일 마침내 첫 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1991년 2월 13일 제459차 군정위 회의 후 만 7년여, 1995년 3월 북측이 장성급회담을 제의한지 만 3년여 만에 양측 장성들이 만나는 첫 회담이었다.

⑵ 장성급회담 절차

3년여의 기나긴 협상 끝에 양측이 합의한 주요내용을 보면 ①정전협정에 따라 장성급회담을 개최한다는 서문에 이어 ②명칭은 유엔사-북한군 간 장성급회담으로 하며, ③의제는 정전협정과 관련한 군사사항으로 한정하고, ④쌍방 대표 각 4명으로 구성하며 각 대표는 동등한 발언권을 갖고, 쌍방 선임장교가 각기 자기 측 대표단의 선임자 역할을 수행, ⑤회담장소는 판문점 군정위 본회의실로 하며, ⑥어느 한쪽이 요청하면 회담을 개최하고, ⑦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⑧회의 결과는 상대방과의 사전협의 없이 각자 공표하고, ⑨한국어와 영어를 사용하며, 모든 공동문서는 이들 두 언어로 작성하되 두 언어로 작성된 발언문 및 문서는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되어 있다.[1)]

1) 회담 중 남과 북의 언어가 조금씩 차이가 나서 그로 인해 곤란을 겪은 경우도 있다. 본 합의문에서도 인지(북 : 인정), 장군(장령), 이견(의견), 권리(권한), 주 회의석상(기본회담탁), 선임장교(상급장령), 선임자 역할(단장), 공표(공포), 한국어(조선어) 등이 서로 다르게 표기되었다.

⑶ 장성급회담의 성격

장성급회담이 군사정전위원회를 대체하는 후속기구이므로 군정위는 없어진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 그러나 장성급회담과 군정위는 별도의 채널이다. 정전협정 제25항 'ㅈ'목에 "쌍방 사령관은 군정위 이외의 별도의 의사소통 채널을 가동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장성급회담은 정전협정에 따라 개최하는 별도의 군사대화 채널로서 군정위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또 장성급회담은 정전협정과 관련한 군사문제를 다루는 회담으로서 남북기본합의서에 근거하여 불가침 관련 이행준수 문제를 협의하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긴장완화를 위한 제반 문제를 협의하는 정치회담인 「4자회담」과도 그 기능과 성격이 확실히 구분된다.

그 성격과 형식이야 어떻든 장성급회담은 양측 최고지휘부의 의도를 상대방에 직접 전달할 수 있는 대화 창구로서, 또 위기관리를 위해 이용 가능한 유일한 고위급 군사대화 채널로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일각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함을 아쉬워하기도 하지만 이는 「적과의 회담」이라는 본질을 생각한다면 크게 문제시 될 일이 아니라고 본다.

⑷ 회담대표

유엔사 대표들이 상대해야 할 북측대표는 그야말로 백전노장들이었다.

선임자인 리찬복 중장(2성)[2]은 '65년부터 '76년까지 판문점에서 통역장교로 근무하다가 유엔총회와 유럽의 여러 도시에서 개최된 비동맹회의의 통역을 담당하였다. 또 '79년에는 중립국감독위원회를 담당하였고, 이후 군정

2) 북한은 장군을 소장(1성), 중장(2성), 상장(3성), 대장(4성)으로 부른다. 회담 중 북측 대표들은 리찬복 중장의 계급을 말할 때 마치 3성장군이라도 되는 듯 중장이라고 힘주어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위에서 승진을 거듭하여 '94년 미군헬기 추락사건 때에는 판문점대표부의 대표로서 협상을 담당한 베테랑 중의 베테랑이다.

한편 박림수 대좌는[3] '79년 군정위회담에 처음 모습을 나타낸 이래 판문점에서 줄 곧 근무해 왔으며 '94~'01간 미 국방부와의 유해송환 협상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였다고 한다.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조동현 소장(1성)에 대해서는 별반 알려진 것이 없고 역할도 미미하였으며, 그나마 회담장에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유엔사 대표 중 Hayden 장군은 ROTC 출신 미 공군 정보장교로서 불가리아 주재 공군무관과 공군장관실 비서실장을 지냈으며, 국가안보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 NSC) 과장과 국가안보국(National Security Agency, NSA) 국장을 역임하였고, 오산기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었다.

3성장군으로 진급과 동시에 미국의 주요 정보기관인 국가안보국(NSA)의 수장으로 영전한 헤이든 장군의 후임으로 부임한 Dunn 장군은 전투조종사로서 미국 공군사관학교를 필자보다 한 해 앞서 졸업하였다. 던 장군은 유엔사 부참모장 겸 판문점 장성급회담 미국대표의 직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미 합동참모본부의 기획참모부 차장으로 영전하였다가 다시 2003년 3성장군으로 National Defense College의 교장으로 부임하였다.

영국대표인 Parr 장군은 Oxford 대학과 Sandhurst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정보장교로서 서독 주재 정보부대장과 국방정보·보안학교장을 역임하였고, 1994년부터 주한 영국국방무관으로 근무했다.

후임인 Baker 장군은 Sandhurst 육군사관학교와 왕립 군사과학대학원을 졸업하였으며, 국방부 공병감과 왕립 군사과학대학원 참모를 역임하였다.

양측은 회담시 장성급 대표들 외에 10명 정도의 영관급 참모진이 배석하였는데 유엔사의 경우 군정위 비서처 요원들과 군정위 한국군연락단 요원 등이 배석하였다.

---

3) 우리는 영관장교가 소령, 중령, 대령의 3단계인데 반해 북한은 소좌, 중좌, 상좌, 대좌의 4단계로 되어 있다.

3. 판문점 장성급회담 내용

(1) 불행한 시작－1차 회담(1998. 6. 23)

역사적인 1차 회담일은 소 떼를 몰고 판문점을 거쳐 16일 북으로 갔던 정주영 명예회장이 북한측과 금강산 관광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판문점을 통해 돌아오는 날이었다. 그러나 회담 바로 전날 오후 북한의 잠수정 1척이 속초 동쪽 근해에서 어망에 걸려버렸다. 공교롭게도 그곳은 18개월 전('96. 9. 18) 잠수함으로 내륙에 침투한 26명의 무장공비를 소탕하는 작전에서[4] 쌍방에 많은 인명손실이 있었던 강릉지역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다. 새로운 회담이 시작도 하기 전에 그물에 걸려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전날 있었던 돌발사태로 새로운 시작이 방해받지 않을까 염려도 되었지만 북측이 회담을 거부한다는 연락은 없었다. 대표들은 헬기로 판문점 남쪽의 캠프 보니파스로 가서 버스로 갈아타고 판문점에 도착하여 자유의 집에서 시간이 되기를 기다렸다. 실무요원들은 회담장에[5] 일찍 들어가 있고, 대표들은 회담장이 완전하게 준비되었음을 확인한 뒤 시간에 맞게 입장을 했다. 자유의 집에서 바로 가면 몇 미터밖에 되지 않는 짧은 거리이므로

---

4) 1996년 9월 18일 새벽 강릉 남쪽 안인진 앞바다에 북한의 상어급 잠수함이 좌초되자 타고 있던 26명의 무장공비들은 육지로 흩어졌고, 이들의 북상을 저지하려는 국군과의 사이에 한달 이상 교전이 계속되었다. 소탕전은 11월 5일 종료되었으나 그 동안 군인 11명, 민간인 4명이 사망하였다.

5) 회담장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걸쳐 지은 7동의 건물 중 유엔사가 관리하는 3동 가운데 하나인 군정위 회의실을 사용하였다. 회담장은 남북 양쪽으로 출입문이 있고, 동서 양쪽으로 창문이 있는데 커튼이 달려 있다. 한 가운데에 동서로 3m 길이의 탁자가 놓여 있어 대표들이 마주보고 앉으며, 보조요원들은 각각 대표들 뒤 입구 쪽에 위치한다. 탁자 위에는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고, 탁자넓이가 1m 15㎝에 불과하여 마주 앉아 있는 상대방이 쓰는 글씨도 쉽게 읽을 수 있을 정도였다.

취재진들에게 시간을 주기 위해 일부러 건물을 한바퀴 돌아가는 코스를 택하였다.

조금 늦게 3명의[6] 북측대표들이 입장했다. 대립과 선전이 주를 이루었던 과거의 군정위 회담과 달리 악수를 청하여 회담 분위기를 좋게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하루 전의 잠수정 사건으로 인해 그럴 상황이 아니었다. 테이블에 앉은 채 헤이든 소장이 자기소개로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필자와 UN군측 대표들이 간략하게 자기소개를 끝내자 북측은 리찬복 대표가 모두를 일괄 소개하였다. 그리고 커튼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약 10분간 환담을 하며 취재를 허용하였다.[7]

회담장의 커튼이 내려지고 본격적인 회담이 시작되었다. 북측 리찬복 대표가 "조선반도에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 북·미 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적대관계를 끝내며, 미군이 철수해야 한다. 북·남 사이에는 북·남 합의서를 통해 불가침협정이 맺어졌고, 군사문제는 북·남 군사공동위를 가동시키면 되고 남은 구조를 대담하게 정리할 때가 되었으며, 이를 위해 오늘 장령급 회담을 갖게 되었다"는 요지의 기조발언을 하였다.

이어서 유엔사측 헤이든 장군이 "어제 북측 유고급 잠수정 한 척이 한국의 영해를 침범한 것은 엄중한 군사적 도발이다. 이는 중대한 정전협정 위반행위이므로 엄중 항의한다. 정전협정은 지난 반세기동안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긴장완화에 기여하여 왔다. 본 장성급회담이 정전협정과 관련한 위기관리와 신뢰구축, 긴장완화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우리는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가 달성될 때까지 정전협정의 제 조항들을 준수해 나갈 것이다"는 요지로 기조발언을 했다.

리찬복 대표는 잠수정 문제에 얽매이지 않으려는 듯 정전협정을 폐기하

6) 회담절차에 "쌍방은 최대 4명의 대표를 지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북측은 리찬복, 박림수, 조동현의 3명이 통상 회담에 참석했으나 조동현이 빠진 경우도 있었다.

7) 필자가 참석한 11번의 회담 중 첫 번째만 취재를 허용하였기 때문에 후속 회담을 보도할 때도 항상 이때 찍은 사진이나 화면이 재사용 되었다.

고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몇 번이나 강조하였다. 헤이든 장군도 평화협정과 적대관계 종식은 정치적인 문제로 장성급회담이 아니라 4자 회담이나 남북회담에서 거론되어야 하며, 우리는 정전협정 내에서 쌍방이 합의한 절차에 따라 긴장완화와 평화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쌍방간에 사용되어 온 기구들을 정상화시키자고 주장하였다.

필자가 발언을 하였다. "우리 남·북 간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각 문제들은 사안에 따라 정치적, 군사적, 인도적으로 풀어야 하는 등 각기 다르다. 사전에 합의된 절차에 본 회담의 의제는 정전협정 관련 군사사항과 해석상의 의견 차이를 해결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어 정치적인 문제는 우리가 다룰 의제가 아니다. 쌍방이 합의한 절차에 따라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요지로 북측대표의 불순한 기도에 쐐기를 박아버렸다.

이어서 영국대표와 태국대표의 간단한 발언이 있은 다음 필자가 다시 회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을 하였다. 이에 북측대표는 이미 모든 것을 다 말했다고 하면서도 정전협정의 폐기를 다시 주장하였고, 헤이든 장군이 회담 계속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1차 회담은 끝났다.

(2) 불행의 심화-2차 회담(1998. 6. 30)

북한 잠수정 관련 국방부는 6월 26일 "우리의 영해를 침범하고 정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를 위반한 침투작전 행위"라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이날 북한은 "잠수정 사건은 반북 모략소동으로 대남공작·침투작전·도발행위 등으로 사실을 날조"하고 있다며 "잠수정을 제때에 구조하지 않아 승조원들이 희생되었으므로 책임을 져야하고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해야 하며 시체와 잠수정을 당장 돌려보내야 한다"고 역공세를 폈다.

다시 회담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북측은 훈련 중 조난을 당한 것이라고 억지를 부리며 잠수정과 승무원을 모두 돌려보내라 했다. 그러면서도 새로

운 전기를 마련하고 화해분위기가 조성되는 시점에 이 문제로 논쟁을 벌이고 싶지는 않다고 했다.

헤이든 장군이 북측 주장의 모순을 지적하며 유엔사측에서 조사한 결과를 설명한 다음 북한의 정전협정 및 '96년 재발방지 약속 위반을 지적했다. 그리고 사실인정·관련자 처벌·재발방지 약속 등을 리찬복 대표나 북한정부의 책임있는 기관에서 표명할 것을 요구했다. 또 승무원 유해는 한국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정전협정과 별도로 다룰 준비가 되어 있어 이를 협의하기 위한 비서장급 접촉을 할 용의가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필자는 잠수정에서 수거한 증거자료—통신기, 난수표, 상황일지, 작전지도, 탑재된 무기류 사진 등—을 보여주었다.

이어서 북한의 억지주장과 이에 대한 헤이든 장군의 사실 설명이 몇 번씩 되풀이되었다. 이에 필자는 북측의 억지에 쐐기를 박아 이 지루한 입씨름을 끝내는 게 좋겠다고 판단, 예인하지 않을 수 없었던 상황을 설명하였다. 북측으로부터 잠수정 승무원들이 자살했다는 것을 인정받아 승무원 사체를 돌려주는 것이 이번 회담의 주 임무가 되어버린 만큼 북측의 자살 인정이 관건이었기 때문이었다.

리찬복이 필자의 존재가 부담스러운 듯 헤이든 장군에게 모종의 조치를 주문했다. "금 준장이 짤막한 말 한마디에 가시 돋친 말을 그렇게 콕콕 내세우는데, 이거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 장령급회담에서 성과를 보장하려면 해당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당신과 나는 아주 좋게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데 옆에서 방해를 논단 말이야. 헤이든 장군은 절차에 따라 모든 대표에게 동등한 발언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묵살한 다음, 리 대표가 보장한 것이 바로 북측 정부가 우리 해군이나 정부를 비난하지 않겠다고 보장한 것이냐고 다시 확인했다. 그리고 필자가 말해준 통역상의 오류를 지적하고 모두가 회담에 기여하도록 하자고 북측의 트집을 막았다.

이에 북측 대표는 시신인도 문제를 인도주의적으로 해결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사건을 종결짓고 장성급회담에서 해결해야 할 힘든 문

제들을 빨리 시작하기 바란다고 하였다. 헤이든 장군이 회의를 마무리 지었다.

(3) 또 다른 불행－3차 회담(1998. 7. 16)

김대중 대통령은 7월 4일 통일부 보고시 강인덕 장관에게 "북한이 (침투사실을) 간접 시인했으나 장성급회담을 통하여 시인, 사과, 책임자처벌 등 공식 다짐을 받아내고 다시는 재발방지 약속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하였다.[8]

그런데 7월 12일 강원도 동해시에서 잠수복 차림의 무장 변사체와 추진기가 발견되었다. 조사 결과 북한의 무장침투 도발임이 판명되었고, 국방부는 같은 날 "북한의 무장간첩 침투사건으로 명백한 도발행위이며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중간조사결과」와 "북한이 정전협정에 위반되는 일체의 도발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이러한 도발행위에 대하여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 하는 「국방부 입장」을 발표하였다.

3차 회담은 우리가 회담을 소집한 만큼 헤이든 장군이 먼저 기조연설을 시작하여 유엔사측 조사반장 파 장군에게 조사내용을 설명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리찬복과 북측 요원들은 듣지 않고 딴전을 피우고 있었다. 헤이든 장군이 이어서 정전협정 위반임을 다시 항의하고, 사실 시인 및 재발방지와 책임자 처벌을 확인할 것과 1996년처럼 유감스러운 사건임을 인식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한다고 하였다.

그러자 리찬복은 "오늘은 당신들이 소집한 회의니까 다 이야기를 하시오"라며 제법 느긋한 자세를 보였다.

이어서 필자가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유엔사령부와 협조한대로 "다시 대한민국 정부의 기본입장을 상기시킨다.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대남

---

8) 조선일보, '98. 7. 6, "돈 들더라도 꼭 만나게－김대통령, 잠수정 재발방지 약속 받아야".

적대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하며, 연이은 침투가 정전협정 및 남북기본합의서 위반임을 시인하고 이에 대한 사과와 관련자 처벌, 재발방지 약속 등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장성급회담이 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남·북 간 좋은 분위기에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 귀측의 성의 있는 조치로 동 사건을 조속히 해결해야 할 것이다"는 요지로 발언을 하는 동안 리찬복은 경청을 하고 있었다.

헤이든 장군이 다시 잠수정의 침투장비와 무장간첩의 휴대장비를 비교분석한 사진 등 증거자료를 들어 보이며 간략하게 설명한 후 사실인정과 관련자 처벌, 재발방지 보장을 재차 요구하였다.

리찬복이 판문점에서의 33년 근무관록을 발휘하며 북한식 회담진행의 진면목을 보였다. 유엔사측이 세 차례 회담을 비열한 정치적 도구로 이용했으며, 표류한 잠수정에 인도적 조치를 취해야 하나 안테나를 두 번이나 꺾어버렸고, 공해상에 있는 배를 끌고 가서 군인들을 사망시켰으며, 국제법을 어기고 비인도적인 행위를 한 것을 감추기 위해 다시 침투자로 조작하여 소란을 피우고 있지만 북·남 관계를 시기하는 남조선 극우 보수주의자들의 서투른 자작극에 불과하다고 억지를 부린 다음 "조선인민군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 군인들의 피 값을 받아내고 쓴맛을 보여주겠다. 우리들로부터 어떤 자비도 기대하지 마시오"라고 협박을 하였다.

리찬복은 미국 측에 대해 계산할 것이 있다며 "상대가 우리를 치면 우리도 맞받아 치고 상대가 우리에게 미소를 보내면 우리도 미소를 보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일관되게 견지하는 혁명적 원칙이다. 장령급회담을 정치적 선전장으로 계속 이용한다면 결정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 남조선군의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우리 잠수정을 즉시 돌려보내야 한다. 만약 돌려보낼 수 없다면 우리는 우리식대로 그 배를 처리할 것이다"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헤이든 장군이 위협적인 언사는 적절치 못하다고 하자 리찬복은 "사실과 결심을 얘기했을 뿐이다. 사죄와 담보는 당신측이 해야 하고 잠수정을 돌

려보내야 한다. 최근의 꾸며낸 사건은 극우 보수주의자들의 거짓 조작극이다. 우리는 이들로부터 반드시 응당한 값을 받아낼 것이다. 장성급회담에서 상대방 비방이나 정치적 선전으로 악용하므로 회담을 계속할 필요를 느끼지 않으며, 단호히 우리의 결심을 결행할 것이다"라고 했다.

≪사족≫ 천용택 국방장관을 인터뷰한 기사가 8월 10일자 11면을 꽉 채웠다. 그 기사 중에 중앙일보 정치부장이 "대통령이 밝힌 '끝까지 사과를 받을 것'이라는 방침을 북한이 받아들일 것으로 보십니까? 장성급회담에서 한국대표가 제대로 기능하는 지도 의문이고…" 하며 필자의 역할에 의문을 표시하자 장관이 "장성급회담은 물론 모든 외교적 수단을 동원, 우리 요구를 관철시킬 것입니다. 특히 장성급회담 대표인 금기연 준장이 이 점을 확실히 챙기고 있고, 미국측도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이렇게 필자의 역할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경우가 있었지만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전후 상황을 알고 있는 부서에서는 필자를 확실하게 신뢰하고 있었다.

(4) 또 다른 역사—비공식 3자 회동(1998. 10. 9)

3차 회담 이후 북측은 리찬복과 헤이든 장군간 비공식접촉을 시도하였으나 유엔사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9월 하순, 유엔사측은 영국대표 파장군의 이임인사를 위한 비공식모임을 10월 2일로 제안하였으나 북측은 다시 헤이든 장군과 리찬복 간—불편하다면 필자도 함께—단독회담을 제의하였으며, 집요하게 이를 반복하였다. 이에 유엔사령관이 한번 만나 이런 방식은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해주라고 했다.

헤이든 장군과 필자가 리찬복과 마주 앉았다. 양측은 통역만 한 명씩 대동했을 뿐, 조용하고 유화적인 분위기에서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갔다.

리찬복이 이제까지와는 달리 먼저 계절과 행사관련 이야기로 분위기를

잡은 뒤 허심탄회하고 솔직한 의견교환을 희망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준비해온 내용을 장황하게 늘어놓은 다음 이른바 북·미·남 간의 「군사공동기구 설치와 관련한 합의서(초안)」를 설명했다.

헤이든 장군이 솔직한 의견교환에 동의하며, 배경 설명 및 제안내용을 주의 깊게 들었고, 유엔사와 관련 정부에도 전달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까지 진행해 온 장성급회담에 변경이 있다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점과 3자간의 비공식 모임은 이것이 마지막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어서 필자가 발언을 했다. "장성급회담은 쌍방이 회담을 하기로 합의한 뒤 절차를 만드는 데 4년이 걸렸다. 이 대표가 제안한 새 제도는 앞으로 합의에 몇 년이 걸릴지, 합의된다 하더라도 절차를 만드는데 또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다. 남북기본합의서는 쌍방 간의 총리가 서명을 했는데도 유명무실화 되어 있고, 4자회담도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제 겨우 몇 번 실시한 장성급회담을 또 다른 것으로 바꾼다고 하면 전 세계가 웃을 것이다."

헤이든 장군은 논쟁이 계속되는 것을 막았다. 그리고 제네바에서 김계관이 장성급회담은 3자회담을 거쳐 미·북회담으로 가기 위한 수순이라고 얘기했다며 사실이냐고 물었지만 리찬복은 비켜갔다. 그러나 필자가 얘기가 안 될 줄 알면서 왜 장성급회담에 응했으며 4년이나 걸려 절차를 만들면서 왜 반영하지 않았는지 반문하자 "그때는 군정위가 없어서 어쨌건 대화를 위해 마주 앉을 기구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우리의 궁극목표는 정전협정 이행을 위한 3자기구로 가는 것이고, 장령급회담은 3자기구로 가기 위한 협상기구로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마침내 속내를 드러냈다.

이에 헤이든 장군이 "오늘의 모임은 장성급회담을 강조하기 위한 것일 뿐, 앞으로는 장성급회담에서 모든 안건을 취급해야 할 것"이라고 리찬복이 더 이상 장성급회담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강조하였다.

필자가 화제를 돌렸다. 리 대표는 최고인민회의 대위원이 되어 지위도 높아졌으니 많은 노력을 기대한다고 치켜세우자 "아니 국회의원 된 것은

어떻게 알았지? 우리 국회의원은 남조선과 달라 힘은 없고 열심히 충성하라는 것 뿐이야"라며 좋아하였다. 필자가 다시 "지난번 북측이 예상조차 못할 정도로 사체를 조기 송환한 것은 (계급장을 가리키며) 이것을 걸고 모험을 했었다. 그런데 북측은 이에 보답은 커녕 딴 소리만 해서 우리 국민이 납득을 하지 못했다. '96년에는 유감을 표명했었고, 이번에도 잠수정이 우리 영해 내에 있었던 것을 인정하는 마당에 왜 그것이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사과를 유도하였다. 리찬복도 "계급장이 떨어질 뻔하였던 것은 나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니까 인민군이 왜 그러는지 잘 분석해 봐야 된다"며 북측 내부의 사정을 비쳤다. 헤이든 장군이 통역과 이야기하고 있는 사이 리찬복이 필자에게 살짝 "오늘의 제안은 금 준장을 감안해서 금 준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우리는 금 준장이 좋아할 줄 알았다. 이것은 (헤이든 장군에게) 이야기 않는 것이 좋겠다"며 필자를 포섭하려는 시도를 하였지만 필자는 못 들은 체 무시해버렸다.

북측이 왜 그렇게까지 양보를 하며 장성급회담에 임했는지가 분명해졌다. 북의 궁극적인 목표는 3자기구로 가는 것이고, 군정위마저 없어져 버린 상황에서 어쨌건 대화를 위해 마주 앉을 기구가 필요했기에 장성급회담이라는 임시 기구를 이용했다는 것이다. 3자기구는 북한이 대남 적화전략의 일환으로 1980년대 초반부터 계속 제기하여 온 것이다. 미·북회담으로 가는 것이 북의 궁극적인 목표이지만 우선은 남한을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일단 참전국들만 배제시키면 유엔사라는 명분도 없어지고, 군정위도 완전히 소멸하게 되며, 미군이 한국에 주둔할 명분도 따라서 없어지는 것이다. 북측이 군사공동위를 성취한다면 이어서 잠정협정을 체결하고, 뒤이어 대미평화협정을 체결하려 들것이다.

(5) 회담으로 Y2K문제 해결을—4차 회담(1999. 2. 11)

4차 회담은 일부 언론에서 북한의 미사일과 유도체계를 직접 확인하지

않는 한 Y2K문제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와 함께 북의 현실태를 감안시 독자해결은 어려울 것이라며 Y2K문제로 인한 미사일 오발과 요격관제체계 마비 등 국방시스템의 오작동 우려를 제기하여 국민의 불안감이 가중된 상태에서 열렸다.[9]

이제까지와는 달리 악수를 청하자 북측대표들도 거부감 없이 응했다. 헤이든 장군이 새 영국대표인 베이커 준장과 호주대표 무어 대령을 소개하였고, 둘은 짤막한 인사말을 하였다. 헤이든 장군이 미군유해 발굴 및 판문점 송환관련 북측 협조 및 남북한의 협력증진사업 지원을 위해 공동경비구역을 사용하도록 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긍정적인 분위기의 발언을 했다. 계속해서 분기별 장성급회담 정례화 개최와 함께 Y2K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노력을 권고한 뒤 추가 설명을 위해 필자에게 발언권을 넘겼다. 필자가 Y2K문제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 후 시한성이 있는 국가적 과제임을 지적하고 북측의 관심과 해결노력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잠재적 위협요소가 상존하고 있는 만큼 우발적 상황에 대비하여 예방적 차원의 남북 상호협의를 희망하고, 군사적 신뢰구축과 긴장완화에도 기여할 것이며, 남북이 국제 Y2K 협의회에 공동으로 참여하여 국제협력을 통해 대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리찬복이 단도직입적으로 지난 해 10월 9일에 제기한 3자회담에 관한 공식입장을 듣고 싶다고 했다. 헤이든 장군도 3자회담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장성급회담을 대체하는 것은 안 되며, 오로지 장성급회담을 공고히 하는 경우에만 받아들일 수 있다고 몇 차례 반복 강조하였다. 리찬복이 차분하게 설득을 하고 다시 검토해 줄 것을 촉구하자 헤이든 장군이 장성급회담을 처음 시작할 때 분명히 정전협정에 관해 토의하고 쌍방간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회담을 마련한 것이지 새로운 기구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었다고 못을 박았다. 그리고 10월 9일의 모임은 장성급회담을 강화하고 보강하기 위해서였지 결코 대체하기 위

9) 중앙일보, 1999. 1. 6, “정통부, Y2K 해결 못하면 북미사일 오발 가능성”.

해서가 아니었음을 강조했다.

이 정도로 물러날 리찬복은 아니었다. 유엔사측의 확고한 입장을 확인한 그의 태도가 돌변하였다. "말끝마다 유엔군, 유엔군 하는데 유엔군에 대해서 까 밝히겠다"고 준비해 온 장황한 궤변으로 유엔사란 있지도 않은 유령기구라고 강변을 하였다. 그리고는 "있지도 않는 유령기구 대표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다. 더구나 당신네들이 우리의 제안을 반대함으로써 자기의 전쟁의사를 노골적으로 표시한 조건에서 앞으로 장령급회담이 더 이상 필요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다시 장성급회담을 중단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그러자 헤이든 장군이 차분한 어조로 분명하게 리찬복의 주장을 반박했다.

더 이상의 입씨름이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필자에게는 당장 Y2K문제에 관한 협의가 더 중요했다. 그래서 필자가 Y2K문제에 관해 질문을 했다. 시한성이 있고, 어느 한쪽이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상황이 발전될 수 있어 우려가 된다며 어느 정도로 문제인식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고 했다. 리찬복이 우리가 제안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군사분계선 표식문제이고, 이 모든 것을 다루기 위해서도 기구가 없어서 안 된다며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다.

헤이든 장군이 잠시 휴식 후 옆 건물에서 설날 기념 사교모임을 갖자고 제안하였다. 리찬복이 "뭐 어케 준비했는지, 금 소장이 뭐 조선식으로 잘 준비했는지 모르겠는데, 음력설에 우리를 초청해 준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면서도 "대화에도 준비되어 있고, 상반되는 데도 준비되어 있다"고 거듭 위협적인 발언을 하였다.

필자가 일상생활에서의 불편이야 참을 수도 있지만 잘못되어 유도탄이 어느 한쪽에서 발사된다면 서로가 원치않는 상태에서 굉장히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정말로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리찬복은 "그 문제는 다 해결 돼야지" 하면서도 논의할 상대가 있어야 된다며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뒤 이어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사교모임이 있었다. 헤이든 장군이 리찬복과 어울리는 것을 보고 필자는 회담을 실질적으로 조종하는 박 대좌와 얘기를 나누었고, 박 대좌는 3자기구의 당위성을 설득하려 했다. 필자는 다시 Y2K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해결을 위한 시간이 충분하지 않음을 예를 들어가며 자세히 설명하였고, 박 대좌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듯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묻는 등 관심을 보였다.

다른 대표들과 요원들도 삼삼오오 통역을 중심으로 모여 환담을 나누며 음식을 먹는 모습이 이제까지와는 딴판이었다. 이런 모임을 자주 갖는 것이 좋겠다는 반응이었고, 분위기도 상당히 우호적으로 변했다.

(6) 회담을 계속하자-5차 회담(1999. 3. 9)

Y2K문제의 해결도 중요하였지만 유엔사에서는 오랜만에 재개된 장성급회담을 어떻게 해서든 계속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 아래 5차 회담을 추진하게 되었다. 유엔사 입장에서는 헤이든 장군의 이임인사와 송별연이 충분한 명분이 되겠지만 이것만으로 북측이 회담에 응할 리가 없었다. 그래서 3자회담에 대한 답변을 주겠다고 함으로써 리찬복이 회담에 나오도록 하였다.

헤이든 장군이 장성급회담을 분기별로 정례화하는 것과 Y2K문제 관련 협력이 필요하며 긴급한 사안임을 다시 강조하였다. 그리고 3자군사공동기구는 수락이 불가하고 유엔사는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될 때까지 의무를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리찬복이 3자군사공동기구 설치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이냐고 몇 번이나 확인한 다음 미리 준비한 8개의 발언문 중 하나를 보며 장황한 발언을 했다. 그리고 있지도 않는 유엔군 간판을 내걸고 있는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3자기구를 거부한다면 더 이상 유엔군과 상대하지 않을 것이라 했다.

또 3자기구가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데 논의도 않고 거부하니 더 이상 만날 필요가 없고, 우리의 만남이 끝이 아닌가 생각하며, 구체적 조치를 통보할 것이라고 했다.

필자가 다시 Y2K문제가 시한성이 있기 때문에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것은 따로 협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며 준비상태를 물었다. 그러나 북측은 주의 깊게 듣기는 하였으나 어떤 답변도 주지 않았다. 특히 배석하고 있는 실무진들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잠시 휴식 후 사교모임이 있었고 국가보안국의 수장으로 영전하는 헤이든 장군이 짧게 인사말을 했다. 리찬복도 그 동안 많은 모임을 갖지는 않았으나 알게 되자 이별하게 되어 섭섭하다면서 답사를 하였다. 한번 해 본 경험이 있는지라 한 달 전의 사교모임보다는 더 자연스럽게 진행되었다.

북측대표들은 한결같이 낙담하고 자포자기한 듯한 느낌마저 들 정도로 회담의 앞날에 대해 비관하고 있었다. 어느 한 대표는 이런 식으로 회담과 사교모임을 자주 갖는 것이 좋지만 유엔사측이 북측제의를 전면 거부하므로 회담을 계속할 명분이 없어 끝이라 하였고, 또 다른 대표는 군부 압력이 거세어 끝장이라고 속내를 드러내 보였다. 판문점에서의 회담을 유지시킴으로써 전방으로 쫓겨가지 않고 생존하고 있다는 가설이 사실임을 느낄 수 있었다.

2시간동안 헤이든 장군과 필자는 북측대표들에게 장성급회담을 계속하도록 설득하였고, Y2K문제와 관련해서 시간이 없고 피할 수도 없음을 상세히 설명하고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도록 남·북 간의 협의를 제의하였다. 북측 대표는 잘 알겠다며 시간과 돈이 많이 들지 않겠느냐고 묻기에 남측에서 일부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며 함께 해결해 나가자고 역설했으나 더 이상 진전시키지 못하고 끝낼 수밖에 없었다.

(7) 서해 교전도 회담전략－6차 회담(1999. 6. 15)

6월 초 서해에서 북한 경비정이 연일 우리 측 영해를 침범하고 이에 우리 해군 함정이 출동하여 군사적 대응조치를 취하면서 긴장이 고조되는 대치상황이 계속되고 있었다.

6월 15일 오전 10시 정각, 회담은 냉랭하게 시작되었다. 신임 미국대표인 던 장군이 기조발언을 시작하였다. 자신을 헤이든 장군의 후임이라고, 이어서 프랑스 대표 토레스 대령을 소개한 뒤, 오늘의 목적은 북방한계선(NLL) 이남 서해상에서의 위험한 상황으로 인한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즉각 해결하기 위한 4가지 조치를 제안하였다.

던 장군의 발언과 통역이 9분간 진행되는 동안 딴 짓을 하고 있던 리찬복이 거칠게 물었다. "다 얘기했어? 당신이 지금 빈말을 하고 있는 이 시각에 당신이 언급한 그 현장에서는 그처럼 우려했던 총폭탄을 사격하기 시작했어, 우리 배들에. 오늘 아침 정각 9시 15분, 당신네 함정들은 우리 배에 총포사격을 가했습니다. 이 소식을 알고 나왔습니까, 당신? 헛소리 자꾸 하지말고 솔직히 말해 보우. 한번 해보자는 겐가?"

첫 회담의 첫 발언에서 기선을 제압당한 던 장군이 당황해 하자 리찬복은 계속 물고 늘어졌다. 필자가 큰 소리로 리찬복의 말을 가로막고 잠시 휴회를 하였다. 그리고 합참상황실로 전화하여 확인하였다. 우리 해군 고속정이 북한함정을 밀어내는 과정에서 충돌하였고, 09시 25분 북측이 선제사격을 가해 우리도 응사했다고 했다.

회담이 속개되어 교전을 둘러싸고 설전이 오가자 리찬복이 말을 돌렸다. 우리의 발언 교환은 칼로 물 베기라며 교전을 계속하자는 건가? 발포하기를 희망하는가? 하며 다시 압박을 시도했다. 리찬복은 또 "교전상황을 알지도 못하고 나온 사람들이 북측이 먼저 사격을 했다고 주장하는데 그걸 어찌 믿겠나?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현 상태를 개선하는 것도, 도발자를 단호하게 징벌하는 것도 다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으름장을 놓

은 뒤 던 장군에게 정전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5개 섬이 분계선의 이북인가 이남인가 물으면서 이것이 오늘 논의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전혀 예기치 않았던 질문에 던 장군이 당황해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으며 이후 필자가 가로막았다. 그러자 리찬복이 "던 장군이 얘기하게 놔두라며, 필자 혼자서 얘기하지 말라"라고 했다. 필자가 필요하면 누구든 발언이 가능하다고 응답하자 리찬복은 던 장군이 정전협정을 모르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묻는다며 회담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기선제압을 시도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필자가 말했다, 분명히 할 게 있다고. 아무 것도 모르고 나와서 어찌 회담을 하겠냐고 하지만 공격 할 계획이 전혀 없었으니 모르는 게 당연하고, 갑작스런 교전으로 경황이 없다보니 우리에게 연락이 안 된 것이다. 몰랐다는 사실 자체가 정말로 우리가 회담에 열중하고 있었다는 반증이 아닌가?

리찬복이 외부에서 건네주는 통지문을 읽어내려 갔다. "쌍방 함정의 심한 충돌로 두 배가 다 침몰 직전이며, 당신네 함대사령관이 북측 함선에 사격을 가해 박살내라고 지시를 하였는데 이는 사격을 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과 다르고, 현대전에서 비밀이란 없는 것이 당신들이 지시를 주고받는 것을 우리도 다 알고 있으며, 당신네가 첨단 기술을 세계에 자랑하면서 이렇게 통보가 안 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당신네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지시대로 행동한다면 우리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전쟁으로 치닫고 있는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생산적인 협의를 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 5개 섬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알아야 되니 답을 주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겠다."

필자가 반박을 했다. "선제사격 금지는 수없이 지시하였고, 언론에도 이미 보도되어 북측도 아는 사실이다. 박살 시키라는 지시는 북측에서 먼저 사격을 해 와서 응사하는 과정에서 지시한 것이 분명하다. 첨단기술을 가지고도 통보가 안 된 것은 그만큼 우리가 전투를 할 생각이 없었고, 경황이 없었기 때문이다."

필자가 발언을 하는 도중에도, 또 자신이 발언을 하면서도 리찬복은 시간이 없다며 빨리 토론하자고 성화를 부렸다. 저들 페이스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필자가 딴전을 부리며 시간을 끌자 참다못한 리찬복이 자신이 원하는 정답을 내어놓았다. "우리는 당신들의 말을 통해서 5개 섬이 북쪽 우리 측 지역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했다. 정전협정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만큼 정전협정의 요구가 우리에게 준 그 권한을 행사하겠다." 1차 회담부터 정전협정이 낡은 헌집이라며 폐기를 줄곧 주장해오던 리찬복이 이제는 그 정전협정을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니! 필자가 즉각 부정했다. 그러자 박림수가 필자더러 가만있으라고, 수석대표끼리 얘기하는데 나서지 말라고 견제했다. 필자가 "여기 수석대표가 어디 있소? 다 같은 대표요, 대표"라고 큰 소리로 맞받은 뒤 서로 무례하게 하지 말라면서 분위기가 점차 거칠게 변해갔다.

리찬복이 또 외부에서 온 통지문을 받았다. "당신네가 쏜 포사격에 의해서 우리 배 한 척이 침몰했소. 당신네, 보도요 자제력 발휘요 하는 그 무슨 생뚱 같은 소리. 나는 오늘 회담을 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정전협정이 부여하고 있는 권한을 사용하겠다. 북쪽에 들어와 있는 5개 섬을 몽땅 없애버리겠다. 당신네 배를 철수시키겠는가, 아니면 5개 섬을 잃겠는가? 이는 결코 위협이 아니다. 오늘 이 사건 해결을 위해 정중한 안을 가지고 왔고 당신들도 접수할 수 있는 합리적인 안이었지만 우리가 그처럼 피해를 입은 이상 의의가 없게 되었다. 배를 철수시키겠는가 아니면 놔두고 얻어맞겠는가?"

필자가 이제까지의 리찬복의 주장에 대하여 한번에 뒤집어 버렸다. "결론부터 이야기해서 NLL을 중심으로 그 이남과 북방 5개 도서는 우리의 영토이고, 여기에는 한 치의 양보도 없다. 오늘 아침 상황은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귀측 시나리오에 의해 자행된 것이고, 이를 이용해 5개 도서를 가져가겠다는 억지주장을 펴고 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하지만 북측이 선제사격을 가해와 대응사격을 한 것이다."

앞에서 몇 번 북측의 통신이 좋다거나 대응이 기민하다고 했지만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사전 계획된 각본에 의한 도발이었고, 그를 회담에서 이용하려 했다고 북측의 의도를 분명하게 지적한 것이었다. 필자는 긴박하게 회담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필자의 머리 속에서 맴돌았던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이런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

리찬복이 다급해졌다. 시간이 없다며 자신의 발언내용을 영문으로 던 장군에게 전해 주라고 했다. 그리고 통보 받은 적도 논의한 적도 정전협정에 언급된 것도 없으니 겹치는 경우에는 분리선을 만들어 쌍방이 합의해서 지키자고 합의를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NLL이 일방적으로 된 것이라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계속 하대를 했다.

필자가 대표끼리 반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의를 주고, NLL을 몰랐다면 해주 항에 들고나는 상선들이 왜 NLL 북쪽 항로만을 이용하느냐고 물었다. 그쪽 영토라면 어느 상선이 비용이 많이 들게 빙빙 돌아서 가느냐고. 리찬복이 한심하다는 듯 한 수 가르치려 들었다. "당신 아직 그것도 모르오? 왜 그런지 그것도 모르겠소? 당신들하고는 아직도 적대관계를 풀지 못하고 있단 말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소?"

필자가 대답했다. "바로 그겁니다. 어찌 되었건 지난 46년간 실효적으로 우리가 지배해왔던 땅입니다." 당황한 리찬복이 얼른 "그러면 정전협정 집어 던지자오?" 하기에 "정전협정과 이것은 또 다른 국제관례입니다"라고 응답하자 말문이 막힌 리찬복은 "그러니까 정전협정 그만 두자는 게지? 응? 정전협정은 뭐냐니까?" 하였다.

북측은 6차 회담에 맞추어 연평도 해전을 사전 계획했음이 분명했다.[10]

---

10) 필자는 이러한 사실과 이에 따른 판단을 정책보좌관에게 즉각 보고하였고, 본 내용은 즉시 보도진에게도 제공되어 긴급뉴스로 전파되었으며, 국가정보원장과 국방부 대변인도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 연합뉴스(국가안보회의 대북문제 전면 검토), 동아일보(입씨름 장성급회담. 북, 한국서 먼저 사격), 조선일보(북 선제사격, 장성급회담 때맞춘 의도적 총격인 듯. 북한 어뢰정 1척 격침, 4척 파손), 한겨레신문(유엔사-북한 판문점 장성급회담, 북 회담머리 교전 공개 '시나리오 도발 가능성').

서해에서의 긴장 고조가 어떻게 시작되었건 NLL을 무효화하고 북측영해라고 주장하며, 최소한 국제사회에 분쟁지역으로 부각시키기 위해 장성급회담을 활용했던 것이다. 필자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①총격시작 시간이 10분이나 차이가 나는 것이다. 리찬복은 총격이 9시 15분에 시작되었다고 했지만 확인결과 총격은 25분에 시작되었다. 핵심문제인 시간을 잘못 파악할 리 없고, 더군다나 리찬복은 회담이 시작되기 전 이미 알고 있었던 상태였다. ②교전사실을 처음 듣고 우리는 당혹감을 금할 수가 없었는데 북측은 지나치게 침착하였다. 6차 회담에서만도 갑작스런 상황이 전개될 때마다 어쩔 줄 몰라 허둥대는 모습을 몇 차례나 보인 리찬복이 그렇게 침착하다는 것은 사전에 충분히 계획된 것이 아니면 불가능했다. ③교전 현장에서 전투와는 전혀 상관없는 회담장에 전투상황을 실시간에 전파할 이유도 없고, 그만한 수단을 갖출 필요도 없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진행되었다. ④최첨단을 자랑하는 장비를 가지고도 어찌 통보를 못 받았느냐고 필요이상으로 비아냥거린 것은 특별히 설치한 통신시설이 기대이상으로 잘 작동되는 것을 보고 우쭐대고 싶어진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⑤당시는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사건해결을 위해 정중한 안'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은 바로 교전을 사전 준비했다는 사실을 엉겁결에 고백해버린 것이었다. 사실 필자가 이러한 사실을 간파하고 회담 중에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귀측의 시나리오에 의해 자행된 것이고, 이를 이용해서 서해의 5개 도서를 가져가겠다는 억지주장을 펴고 있다"고 지적하자 두 번 다시 교전 현장을 들먹이지 않았다.

≪사족≫ 사전 계획된 시나리오에 의해 자행된 북측의 선제사격으로 교전이 시작되었음을 간파하고 이를 지적함으로써 리찬복의 기를 꺾고, 온 세상에 북의 사전계획임을 널리 알림으로써 향후 우리 정부 및 유엔사의 행보에 크게 기여했음을 필자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지금 생각해도 그 당시 긴박하게 돌아가는 회담을 차질없이 진행하면서 전혀 다른 곳에서 일

어난 상황을 파악하여 대응논리를 찾아낼 수 있었다는 것이 고맙고 신기할 뿐이다. 아마도 필자가 회담을 하고 있는 시간이면 어김없이 성당을 찾아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던 아내의 정성이 통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

(8) NLL을 둘러싼 공방-7차 회담(1999. 6. 22)

북측은 이제까지와는 달리 6차 회담 직후인 15일 오후 3시 조선중앙방송을 통해 판문점에서 장성급회담이 있었다는 사실과 연평도 해전상황을 자세히 보도하였다. 아마도 NLL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많음을 국내외에 부각시키고 앞으로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국방부도 대변인을 통해 우리 해군함정이 자위권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대응사격을 실시하였음과 그 책임이 북한에 있음을 밝히고, 더 이상 NLL 침범행위와 무력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 군은 NLL 침범과 어떠한 무력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밝혔다.

6월 22일 오전 10시 정각부터 21분간에 걸쳐 리찬복의 장광설이 이어졌다. 이번 사태가 남조선군에 의해 촉발되고 확대되었으며, 문제의 수역은 북한의 영해이고… 이번 사건의 책임을 시인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하며, 재발방지와 관련한 담보를 하고,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하여야 할 것….

이어 던 장군이 화요일 이후 쌍방은 커다란 자제력을 보여주었고, 회의 재개에 동의했다는 사실이 좋은 징조라고 하였다. 이어서 필자가 NLL에 대한 우리 입장을 재천명 하였다. "NLL은 실질적인 해상분계선으로 지난 40여 년간 쌍방이 인정하고 함께 지켜온 엄연한 해상경계선이다. 설정 이후 20여 년간 북측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84년 남측에 홍수구호물자를

전달할 때 북측 선박은 동 경계선상에서 전달하였으며, 북측 민간 선박과 상선들도 동 경계선을 존중하고 있는 것은 지난번 회담시 리대표도 인정한 바 있고, 특히 남북기본합의서와 불가침부속합의서에서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계속 협의하되 그때까지는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해 온 구역으로 한다고 NLL을 합의하였으므로 NLL은 절대로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 남·북 간의 새로운 해상불가침 경계선 협의는 남북합의서에 따라 군사공동위를 통해야 한다. 그러나 획정될 때까지는 현재의 NLL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그리고 우리가 선제공격을 했다고 주장하는 만큼 6월 15일 교전의 정확한 상황을 시간대별로 설명하였다. 이어서 책임을 시인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며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것은 바로 북측에서 해야 할 의무라 하고 발언을 끝냈다.

리찬복이 첫째로 먼저 사죄하고 범죄자들을 처벌하며 재발방지를 보장해야 하고, 둘째로 NLL이란 것을 무조건 철회하고, 셋째로 재발방지와 관련한 실제적인 대책을 토의하는 협상기구로 3자군사공동기구를 수용하고, 넷째로 우리 함정들을 충돌수역에서 철수시키고 북측 영해 침범행위를 중지시키라고 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조치들을 취하면 북측도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NLL이란 게 무엇인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있다고 능청을 떨었다. 그리고 우리가 NLL을 주장함으로써 끝까지 정전협정을 포기하자는 것인가 하는 입장만 표시하라고 하였다.

던 장군이 이제까지와는 다르게 리찬복을 나무라자 리찬복이 다시 NLL을 고집함으로써 정전협정을 포기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필자가 NLL은 휴전협정을 이행하고 안전 항행을 보장하기 위해 설정한 것으로 40여 년간 잘 준수되어 왔고 상호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따라서 휴전협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완한 것이라고 했다. 리찬복이 다시 NLL을 고집하겠는가 아니면 정전협정을 지키겠는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압박을 가하자 던 장군이 합의한 것을 무의미하게 만든다면 또 다른 합의를 한다

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했다. 리찬복은 NLL을 철회하지 않아 충돌이 전면전으로 비화한 다음 후회해야 필요가 없다며, 인내에도 한계가 있고 자제력을 나약함으로 오판하지 말라고 했다.

(9) NLL을 철회하라-8차 회담(1999. 7. 2)

북한 해군사령부는 6월 20일부터 30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보도」란 것을 발표하였다. 내용은 한결같이 한국 해군이 계속 북측 영해 깊숙이 전투함정들을 불법침입 시키고 있으며, 북한 해군의 참을성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경거망동은 자멸의 길이라는 것이었다.

리찬복이 우리의 8가지 제안을 신중히 검토하였지만 NLL 유지에 기초를 둔만큼 실질적인 충돌방지와 긴장완화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현 사태를 시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보다 심각한 유혈사태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공갈과 함께 ①NLL을 철회하고 ②문제수역에서 남측함정들을 즉시 철수시키며 ③북측 영해에 대한 침범과 도발행위를 당장 중지하고 ④서해교전 관련 책임자 처벌 및 사죄와 보상을 하며 ⑤해상충돌방지와 관련한 원칙 합의는 장성급회담에서, 실무적인 문제는 별도로 토의하도록 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던 장군이 NLL이 정전협정을 보완하기 위해 설정되었으며, 오랫동안 쌍방이 존중하여 왔고, 한국 정부가 이 경계선에 대해 토의하자고 하며, 한국 정부와 협의할 내용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공방이 몇 차례나 반복되었다.

필자가 NLL 관련 북측이 선과 수역을 인정한 한 예를 들겠다고 하면서 1963년 5월에 있은 제168차 군정위 본회의 내용을 거론하였다. 역시 리찬복은 백전노장다웠다.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재빠르게 포착하여 상대방의 기를 꺾어버림으로써 다시는 꼼짝하지 못하게 하는데 가히 천재적인 솜씨를 발휘하는 것이었다. "금 준장, 경솔한 발언하지 말라우, 경솔한 발언.

당신 뭐 정전협정과 군사정전위원회에 얼마만큼 안다구. '63년도에 진행된 무슨 정전위원회요 뭐요 하오? 당신 '63년도에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난 그 회의에 직접 참가한 사람이오" 하면서 필자를 비롯한 우리측 대표들을 확실하게 기죽이는 발언을 하였다. 그리고 자제력에도 한계가 있어 보다 큰 유혈사태가 초래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있다고 다시 으름장을 놓았다. 그리고 필자가 북측의 5개 제안을 몽땅 거부한 것은 경솔한 발언으로 간주하고 공식적인 입장으로는 보지 않겠다고 했다.

예의를 갖추라고 했고, 거짓말쟁이로 비난을 하였으며, 금장군이 제안을 모두 거부했다고 했는데, 우리는 금장군 얘기대로 우리 함정들의 철수도 NLL의 철회도 인원들에 대한 처벌도 않을 것이라고 던 장군이 공언하였다. 전투에서의 승리를 위해 호흡을 함께 하는 전투조종사간의 상호 지원이 이곳 회담장에서 유감없이 발휘되는 순간이었다.

이어서 던 장군은 또 다른 미사일발사를 중단할 것과, 미군유해 송환을 위한 대령급회담을 갖자고 하였다. 리찬복이 미사일 발사 문제는 정전협정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북한의 자주권에 해당되는 문제이고, 유골문제는 인민군과 미 국방성 사이에 이룩된 합의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이므로 유엔측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문제라고 하였다.

필자가 다시 발언했다. 회담은 상호간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경청하는 것이 원칙인데 '경솔한 발언을 한다, 뭘 안다고 그래, 그때 뭘 했는지 몰라도, 나는 그 회의에 참석했어' 하는 식의 언동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으며, 리 대표의 말대로 '63년도에 필자는 중학생이었다고.

리찬복이 "당신 뭐야, 정전협정 문제 논의하라우. 쓸데없는 소리하지 말구" 하며 우쭐댔다. 필자가 계속했다. "1963년은 36년 전이라, 너무 옛날이야기라서 기억이 잘 안 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리 대표님이 여기에 34년간 있었던 줄 알았더니 36년 간 계셨구만요."

백전노장 리찬복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다. 판문점이라는 한 곳에 30여년 근무했다는 관록만으로도 북쪽은 물론이고 유엔사측에서도 감히 리찬복

의 권위에 도전할 사람이 없었거늘 햇내기인 필자한테 그만 거짓말이 들통이 나 권위에 먹칠을 해버렸으니….

(10) 새로운 해상경계선을 설정하자—9차 회담(1999. 7. 21)

9차 회담은 권총을 휴대하고 들어온 북측 경비병 문제로 10시 12분에야 회담이 시작되었다.

리찬복이 북측이 제의한 5개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NLL을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자기 영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극히 위험하며, 해상경계선은 곧 공중경계선이므로 오늘 해상경계선을 설정하지 않으면 내일 공중에서도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고 강변한 뒤 새로운 해상경계선을 제안[11] 하였다.

던 장군이 지난번 회의에서 해상경계선에 관한 모든 협상은 기본합의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고 환기시켰다. 이어서 필자가 오늘 새로운 합의를 위해 어제 합의했던 사항을 부정한다면 신뢰구축이 절대 될 수가 없다며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남북기본합의서 11조와 불가침부속합의서 10조를 인용하였고, NLL이 지난 46년간 엄연한 군사분계선으로서 역할을 해왔으며, 이 선을 중심으로 우리의 관할권이 행사되어 왔음을 환기시켰다. 그리고 서해상에서의 해상경계선부터 확정하자는 데 대해 동의하고, 새로운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는 현재의 NLL이 그대로 지켜져야 한다는 것과 이를 위한 협의는 기본합의서에 따라 남·북 간에 이루어져야 함을 다시 한번 환기시켰다.

리찬복이 서해사태를 남북 사이에 토의할 문제라고 하는 것은 장성급회담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라고 하였다. 그리고 기본합의서도 정전협정의 준수는 강조하지만 해상경계선을 남·북 간에 토의해야 한다는 내용은 어디

11) 이날 리찬복이 제안한 새로운 해상경계선은 NLL보다 훨씬 남쪽으로 그은 것으로 북측으로서는 하나의 희망이겠지만 우리로서는 상상도 못할 엉터리 선이었다.

에도 없으며, 남북대화가 결렬되고 공동위원회가 가동되지 못하는 현시점에서 남·북 간에 토의하라는 것은 정전협정에 대한 책임회피라 하였다. 그러므로 전문가까지 포함하는 실무급 접촉을 마련해서 토의하자고 하였다. 쌍방 간의 주장은 몇 번 계속되었다.

던 장군이 화제를 바꿔 미군유해 발굴을 중단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하자는 것인지 물었다. 리찬복이 유해문제는 미 국방성과 인민군 사이의 합의이므로 유엔사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며, 던 장군이 유엔군이 아니라 미군 소장으로 나온다면 이야기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리찬복이 군사적 충돌방지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해상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이며,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토의를 위해 실무자 간 회의를 강조하고, 거절한다면 더 이상 마주앉을 필요도 없고 장성급회담도 영원히 막을 내릴 것이라며 장성급회담을 볼모로 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던 장군이 발언하려는 것을 필자가 가로챘다. 군대를 갈라놓으려면 기준선이 있어야 하는데 이 기준선은 현재로서는 NLL이고, 이것은 지난 46년간 쌍방이 존중해왔고, 실질적인 군사분계선의 역할을 충분히 해왔으며, 실무급 회의는 기본합의서의 군사공동위원회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그리고 기본합의서는 장성급회담과 같은 하위 회담이 아니라 양측 총리 간에 합의된 사항임을 강조하였다.

리찬복이 해상이 아니라 공중이나 육지에서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남·북 간에 협의하란 말이냐고 던 장군을 계속 압박하였지만 필자가 건네준 메모를 본 던 장군이 우리 입장을 간단명료하게 대답하였다. 정전협정 위반사항은 장성급회담, 해상경계선은 기본합의서에 의해 남북간 협의사항이라고.

(11) 경계선 협의를 위한 실무회담을-10차 회담 (1999. 8. 17)

9차 회담이 끝난 후 북한은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을 통해 "미군은

쌍방이 합의한 적도 없는 NLL을 한사코 고집한다"며 "북한군과 미군이 서해 해상경계선 문제를 토의하는 실무급 접촉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부 대변인도 "북한의 새로운 해상경계선 설정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으며,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공식 천명했다.

10차 회담은 9차 회담의 연장선상에서 쌍방 간 같은 논리로 같은 주장을 몇 번씩 되풀이하였다. 그리고 특기사항이라면 북측이 서해 해상군사분계선 토의를 위한 쌍방 실무접촉의 구체적인 제안을 한 것이었다; ①8월 하순부터 회담을 시작하며 ②인민군과 미군 대령급을 단장으로 각 5~7명의 인원으로 구성하되, 문제의 성격상 남한군도 포함 가능하고 ③장소는 판문점으로 하며 ④회담주기는 원칙적으로 10일 이내 1회로 하고 ⑤비공개로 진행한다. 리찬복은 우리가 이 제안에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휴식을 제의하였다.

휴식을 취하기 전 필자가 한 가지를 분명히 하였다. 작은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고위직에서 만든 것을 부정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전제한 뒤 남북기본합의서는 쌍방의 총리급 회담에서 충분히 협의 후 만든 것이며 장성급회담보다 상위개념임을 환기시켰다. 따라서 서해 해상경계선 문제는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에서 합의한 대로 남·북 간에 협의해야 할 사안이며, 기타 정전협정 관련 사항은 회담절차에 명시된 대로 장성급회담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다시 강조하였다.

다시 회담이 속개되자 리찬복이 해상 군사분계선을 먼저 설정하고 그 후에 신뢰조성방안을 토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고집하였고, 던 장군은 실무급 접촉은 남·북 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쌍방간의 이러한 주장이 두 번씩 되풀이되자 리찬복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기들의 노력에도 한계가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는 북측의 제안을 심사숙고한 후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기를 기대한다면서 우리의 대답에 따라 장성급회담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하였다.

(12) 필자의 마지막 회담－11차 회담(1999. 9. 1)

리찬복이 서해 해상분계선 관련 결심을 하기에 앞서 미군 측의 입장을 최종 확인하기 위해 회담을 제기했다며 해상분계선 문제의 토의를 기피하는 것은 정전협정을 포기하고, 일방으로서의 의무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며, 장성급회담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고, 해상분계선 문제를 남·북 간에 해결하라는 것은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문제도 남·북 간에 해결하라는 논리라고 억지를 부렸다. 리찬복은 또 정전협정 의무를 포기하고 일방의 의무를 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장성급회담을 거부하는 것과 같은 것이며, 정전협정 문제를 토의하지 않는 장성급회담은 더 이상 할 필요없다고 하였다. 이어서 NLL은 북측과 아무런 토의없이 일방적으로 그은 강도적인 선으로, 이를 고집하는 것은 이 지역에서 군사적 충돌을 일으키겠다는 것으로 이해되며, 해상 충돌사태 발생시 책임은 유엔사측이 져야 한다고 강변한 다음 자기들이 제의한 실무접촉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최종적인 공식 입장을 말해달라고 하였다.

던 장군이 해상분계선 문제에 대해 토의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남·북 간에 토의가 되어야 하고, 협의 내용도 해상분계선이지 NLL이 아니라고 못을 박았다. 필자가 이어 받았다. NLL과 관련한 우리측 입장을 누차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측이 억지 주장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다시 분명히 하겠다며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우리의 기본 입장을 천명하였다.

리찬복이 바라지 않았고, 제일 우려했던 답변을 받았다며 결연한 표정으로 6차례 진행된 서해 해상문제 관련 회담에서 유엔사측의 입장을 명백하게 확인하였는바 이는 정전협정을 포기하는 행위이며, 북측의 정당한 해상구역에 대한 노골적인 침해행위이므로 절대 용납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아무런 결실도 없는 장성급회담에 더 이상 흥미가 없으며, 마주 앉을 필요도 없고,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미측이 거절하므로 정

전협정에 따른 단호하고 결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한 다음 회의를 끝내자고 하였다.

던 장군이 장성급회담을 NLL과 연관시키며 취소하겠다고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하며 장성급회담에 나오는 문제는 북측이 결정할 사안이지 자기가 강요할 문제가 아니라고 하였다. 그리고 북측이 협의를 하자면서 일방적인 선언을 하는 것은 협의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4. 마치는 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성급회담은 기존의 군정위 회의와 여러 면에서 다르다. 우선 구성요원을 보면 군정위는 유엔사를 일방으로 하고 북한 및 중국대표가 다른 일방이었으나 장성급회담은 조선인민군을 일방으로 한국·미국·영국대표와 참전국 교체대표가 다른 일방이 되었다.

또 군정위의 경우 수석대표인 미국대표만이 갖던 발언권을 장성급회담에서는 모두가 동일하게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큰 차이점이라 하겠다. 단지 미국대표가 선임자로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조정자 역할을 하였으나 때로는 필자가 그 역할을 한 경우도 있었다. 동등한 발언권을 갖는다는 것은 회담 내내 구경만(?) 하고 있어야 했던 군정위 본회의와 달리 필요한 경우엔 어떤 내용이던 적절한 시기에 바로 발언할 수 있다는 것으로 그 책임 또한 클 수밖에 없었다. 필자는 발언권을 활용하여 국방부와 정부의 입장을 시의적절하게 대변하였으며, 온갖 궤변과 희한한 논리를 앞세운 북한의 불순한 기도를 번번이 좌절시킬 수 있었다.

북측은 처음부터 장성급회담 자체에는 관심도 흥미도 없었음이 틀림없다. 그러면서도 장성급회담을 받아들이게 된 것은 단지 북미회담으로 가기 위한 중간과정으로서 「대화의 장」이 필요했고, 그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장성급회담이란 틀을 잠시 빌렸던 것이다. 이는 리찬복의 1차 회담 기조연설에서 명백하게 밝혀졌고, 비공식 3자회동에서 리찬복이 노골적으로 말한 대목이기도 하다.

이처럼 목표하는 바가 따로 있었기에 북측은 그 동안 참가했던 모든 회담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양보를 해주면서까지 회담장에 나왔던 것이다. 회담장에 나와야만 그들의 궁극목표인 북미회담을 위한 무언가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임시 기구라고 여겼기에 회담대표 모두에게 발언권을 인정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던 것이 분명하다. 물론 거의 평생을 판문점회담으로 일관해 온 백전노장으로서 한국대표야 누가 되던 얼마든지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했을 지도 모르겠다.

또한 이러한 목표가 있었기에 리찬복은 필자나 다른 대표들의 발언에는 애써 무관심한 척 무시하고 오로지 미국대표만을 대화상대로 인정하려 했다. 그러다가도 필자의 발언에서 조그마한 틈새라도 보이면 지체 없이 필자에 대한 공격을 시도하는 것이 어떻게든 필자나 다른 대표들을 제외하고 미국대표와만 대화를 하려는 시도였다. 그렇지만 이러한 북측의 시도는 우리 유엔사 대표들의 긴밀한 협조와 효과적인 회담 운영으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었다.

북한은 애당초 북미회담을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장성급회담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첫 회담이 있기 전날 예상치 못했던 잠수정 사건이 발생하였고, 기대이상으로 빨리 승조원 사체를 송환함으로써 북한 내 리찬복의 주가가 급상승했으리란 것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뒤이어 무장간첩 시체가 발견되고 국민감정이 악화되자 회담을 중단하고 추이를 살피다가 마침내 북미회담을 위한 필수과정인 3자회동을 관철시키려 하였고, 새로 제안한 기구를 유엔사가 검토할 시간을 주기 위해 기다렸던 것이다.

4차와 5차 회담은 북미회담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겠지만 판문점 대표부의 존재가치를 부각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지 않

았나 짐작된다.

6차 회담부터는 NLL을 철회하고 새로운 해상경계선을 설정하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고 협조한 것이었다. 그러기에 해상교전을 계획하였고, 전과는 달리 회담이 끝나자마자 방송을 통해 신속하게 저들의 주장을 반복 선전하였으며, 심지어는 외신기자 회견까지 갖는 등 총체적인 노력을 한 흔적이 뚜렷하다. 이를 계획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리찬복이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초기 입안단계에서 결정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 필자의 짐작이다. 왜냐하면 새로운 해상경계선을 주장하는 전 과정에서 리찬복이야말로 북측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였고, 북측을 대표하는 싸울아비로서 우뚝 설 수 있었기 때문이다.

리찬복을 내세운 북측대표는 목적 달성을 위해선 논리의 일관성도, 회담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장성으로서의 품위도, 어른으로서의 양식도 언제든지 쉽게 포기하는 야누스의 얼굴을 갖고 회담을 이끌어 갔다.

1차 회담 기조연설에서 낡은 집에 비유하며 폐기하고 새로 만들어야 한다던 정전협정도 필요에 따라선 [NLL이냐, 정전협정이냐?]며 우리를 공격하는 무기로 돌변시켰고, 마찬가지로 1차 회담 기조연설에서 가동시키면 된다던 남북군사공동위원회도 편리한 대로 [있지도 않고, 가동도 불가능한] 것으로 규정하여 가동을 주장한 우리를 몰아 부치는 도구로 활용하였다. 그런가 하면 3자 회동에서 필자가 "장성급회담을 하기로 쌍방이 합의하고도 절차를 만드는데 4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하였다. 리대표가 제안한 새로운 제도는 합의에 얼마가 걸릴지, 합의한다 하더라도 절차를 마련하는데 또 얼마가 걸릴지 모른다"고 하자 "4년간이나 고심해서 만든 장성급회담을 무시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양보하고 보충해서 좀 더 발전적으로 만들자는 것"이라고 얼버무리기도 하였다. 또 유해문제를 거론하던 던 장군에게 [유엔군이 아니라 미군 소장으로 나온다면] 논의가 가능하다고 유엔사 요원임을 강조하다가도 [눈감고 아옹 하는 소리] [근 50년 동안 세상 사람들을 속여 온] [감투만 쓰고 있을 뿐] [지금 어디 유엔

사가 있는가] 등으로 강하게 유엔사의 존재를 부정하기도 했다.

수시로 반말을 해대는가 하면, 던 장군에 대해서는 답답한 사람 또는 회담 절차도 모르는 사람으로, 필자에 대해서는 경솔하고 무식하며 나이 어린데다 콕콕 쏘는 말투로 회담진행을 방해하는 사람으로 단정하여 몰아붙이는 무례함을 자주 보였다.

그런가 하면 필요에 따라선 필자를 준장이 아닌 소장으로 부르기도 하고, 잘 하누먼 하고 칭찬도 하며 분위기를 살리고, 조선음식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하며 기대도 표시하는 등 그야말로 자유자재로 운신을 하였다.

나이보다도 앳돼 보이고 회담경력도 없는 필자를 대하면서 리찬복은 내심 쾌재를 불렀으리라. 그러나 처음부터 필자로 인해 자신이 구상했던 회담전략을 구사하는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었던 그는 일찌감치 미국대표에게 필자를 손보라는 요청을 하게 되었다. 그 후에도 몇 번이나 필자의 입을 막으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 버렸고, 마침내는 더 이상 그러한 시도를 포기해버렸던 것으로 필자는 추측한다.

북측이 대단한 융통성을 발휘하며 회담에 임했지만 절대로 변치 않았던 점이 있다. 그것은 철저하게 북미회담을 고집하고, 한국이나 다른 나라 대표들을 무시하며, 일관되게 북미회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미회담으로 가기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장성급회담을 수용하고 첫 회담의 기조연설에서 이미 정전협정의 폐기와 북미회담을 강조하였으며, 비공식 3자회동에서 이러한 흉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었고, 서해교전 이후 교전의 원인이 경계선의 부재라고 우기면서 새로운 경계선을 협의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3자기구의 전례가 될 수 있는 3자협의를 끈질기게 요구하였던 것이다.

북한이 '99년 6월 15일 서해교전을 일으킨 이유도 이러한 맥락에서 짐작이 간다.

북한이 미국만을 상대로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므로 일단은 한국을 포함시켜 3자기구로 할 수밖에 없는데, 잠정적으로 3자기구를 출발

시키려 해도 한국과 미국이 워낙 완강하게 반대하므로 좀처럼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 따라서 정식 3자기구는 아니지만 그 전 단계로서 격이 좀 낮더라도 우선 3자가 협의하는 실질적인 사례를 마련할 필요가 절실하였다. 이 또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미국과 한국이 어쩔 수 없이 협의에 응하도록 하는 한 방안으로서 서해교전을 계획했던 것이다. 즉, 선제공격으로 한국해군을 제압한 다음, 피해를 입고 우왕좌왕하는 혼란을 이용하여 같은 시간에 진행되는 장성급회담에서 교전의 원인이 된 해상경계선을 새로 협의하는 3자 실무기구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도록 강력하게 압박한다는 계획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6월 15일의 회담에서 리찬복이 시간이 없다며 자신이 발언한 내용을 던 장군에게 주라고 한 사실이나 쌍방이 합의해서 지키자고 합의를 강조한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리고 이보다 더 결정적인 증거는 '사건해결을 위해 정중한 안'을 가지고 나왔다고 엉겁결에 스스로 고백한 것이다. 주도면밀하게 계획한 해전에서 예상밖의 참패를 당했음을 전해듣고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자 그만 속내를 들어내버린 것이다.

서해 교전 이후에도 북한이 「NLL이냐 정전협정이냐(7차), NLL을 철회하라(8차), 새로운 해상경계선을 설정하자(9차), 경계선 협의를 위한 3자 실무회담을 하자(10차), 3자 실무회담에 응하라(11차)」며 남북한과 미국 3자가 협의하는 사례를 만들기 위해 일관되게 노력한 것도 필자의 판단을 뒷받침하는 증거라 하겠다.

전투조종사로서 영공방위임무에 전념하여 왔던 필자가 군사외교 협상 테이블인 판문점 장성급회담이라는 역사의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은 필자로서는 행운이었다. 그리고 경험도 없었고 별도의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바도 없었지만 한국대표로서의 임무를 차질 없이 완수하였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그러나 역사의 순간에 보다 더 잘 할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이다. 그 아쉬움이란 필자의 잘못이 아니라 보다 큰 틀 또는 상부지침에 의한 것이었지만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 필자의 소회를

밝혀둔다;

북한과의 회담이나 협상은 철저하게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필요에 의해 합의했던 사항도 또 다른 필요가 생기면 얼마든지 일방적으로 파기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우리는 일관되게 합의사항을 지켜나가도록 하고(물론 양측이 합의하면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겠지만), 섣부르게 한번의 회담을 구걸하지 않으며, 작은 성과를 위해 이전 합의와 배치되는 양보를 하지 않는 등 원칙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양보할 것과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을 분명히 구분하여 사전에 정해놓은 상태에서 그것을 지키고, 우리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며, 필요하면 단호한 자세를 확실하게 보여야 할 것이다.

장성급회담을 시작하기 전 북한은 동등한 발언권을 합의했었다. 그러나 필자의 발언과 존재가 방해가 된다고 판단하자 필자의 존재를 없애버리기 위해 아니면 발언권을 제한하기 위해 수시로 시도를 하였다. 그러나 유엔사 대표들이 동등발언권 원칙을 일관되게 고수하자 리찬복은 더 이상 장난을 칠 수가 없게 되었던 것이다.

또 유엔사와 회담을 한다 하고선 첫 회담에서부터 3자기구를 주장했고, NLL의 철폐와 새로운 해상경계선 설정을 위한 3자 실무접촉을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이 또한 유엔사의 일관된 원칙준수와 단호한 입장표명에 의해 좌절되었던 것이다.

장성급회담만 보더라도 11차 회담에서 북측이 발언한 대로라면 다시 열릴 수 없었을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이후로도 세 차례 더 열려 정전협정에 대한 추가합의사항을 2가지나 더 만들어 내었다. 즉, 북한은 자기들이 필요하면 회담에 나오게 마련이고, 또 다른 필요가 생기면 그에 따라 회담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리고 1998년 8월 11일에 재개된 유엔사의 공동경비구역 내 헬기 이착륙 훈련도 북측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원칙을 지킨 결과였다.

1953년 휴전협정이 서명된 이래 판문점 도끼만행·프에블로호 납북·

EC-121격추·잠수함침투 등 1,600건이 넘는 무력사건과 43만 건이 넘는 정전협정 위반으로 2,200여 명의 인원이 사상 당하면서도 현 휴전협정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데에는 유엔군사령부의 일관된 원칙준수가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원고투고일 : 2003. 7. 10, 심사완료일 : 2003. 8. 4)

주제어 : 장성급회담, 3자기구, 북방한계선(NLL), 해상경계선, Y2K

KCI

<ABSTRACT>

The Facts of General Officers Talks at Panmunjom since 1998

Keum, Ki-youn

Panmunjom General Officer Talks, which began on June 23, 1998, was an irregular meeting between General Officers of the United Nations Command and Korean Peoples Army. The General Officer Talks was held more than seven years after the 459th Military Armistice Meeting which was held in February 1991 and more than three years after the North proposed to have General Officer-level meeting in March 1995.

But, the North tried to ignore the agenda for the talks which limit the Armistice Agreement as the basis for conflict resolution and prevention. The North also ignored the provision which said subsequent meetings shall be held at the request of either side. Consequently, the situation was turned queer in which the talks could only be held when the North Korea wanted to have one. However, unlike the Military Armistice Meeting, all delegates of the General Officer Talks were given an equal voice, and it was by making the most of this equal voice that the Republic of Korea members well represented the position of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nd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The ROK members also effectively blockaded evil North Korean tricks every time.

It is definite that North Korea did not have any interest or concern for the General Officer Talks from the beginning. The only reason that North Korea accepted the meeting was because North Korea needed a venue for

dialogue as an interim process for the North Korea-US talks. It just borrowed the formula of General Officer Talks only to get a venue for dialogue with the US.

But, North Korea had to stop the meeting when the dead body of a North Korean spy was found in the East Sea near Kangneung. Due to this event, public opinion was aggravated. Therefore, North Korea had to wait to see the change of public opinion of the South. Then, it proposed a tripartite talk－a compulsory process for the North Korea－US talk－and waited to give the UNC-side time to study about its proposal.

In my point of view, the fourth and the fifth meeting were to demonstrate the reason for existence of the North Korean Panmunjom Representative as well as checking the response of the UNC-side.

The sixth and following meetings were thoroughly prepared and coordinated to remove the existing Northern Limit Line and establish a new maritime border line. That is why North Korea had planned a maritime battle and unlike before North Korea repeatedly propagandized their assertion through a broadcasting system as soon as the meetings were over. North Korea even held news conference with domestic and foreign press－clear evidences of an all-out endeavor.

Members of North Korea, with Chanbok Lee at the top, managed the meeting with a Janus-face. This meant that if it is helpful for achieving their goal, the North Korean side could easily give up the following: consistency of logic, minimal etiquette to UNC counterparts, dignity as a general officer and common sense as an adult.

There is one thing that has never been changed even though the North was so flexible. That is to adhere to the North-US dialogue, to ignore member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other countries and consistently trying their best to achieve the North-US dialogue.

I am very much proud of successfully accomplishing the mission of ROK member in a historic venue of Panmunjom General Officer Talks even

though I was a fighter pilot. But, sometimes I feel that I could have done better, so I point out some lessons that I learned. They are as follows ;

We have to adhere to the principles when it comes to talks or negotiations with the North. It does not hesitate to change or break unilaterally whatever it had agreed whenever needs arise. But, it is at this time that we have to stick to the principle by adhering to what we had agreed, not begging for another meeting, not conceding for small rewarding if it contradicts with what we had agreed before. And distinguish beforehand what we can concede and what we should not. We must keep that distinction, announce our position clearly and show resolute stance if necessary.

We must not forget that the United Nations Command has contributed a lot to the maintenance of the current Armistice Agreement system by consistently adhering to the principles. The UNC has adhered to the principle even though there has been more than 1,600 armed conflicts such as the Panmunjom axe murder, Hijacking of the USS Pueblo, Shooting down of an EC-121 and Infiltration of submarine, etc and more than 430,000 violations to the Armistice Agreement which demanded more than 2,200 casualties.

Key Words : General Officer Talks, Panmunjom, NLL, Maritime border line, Y2K